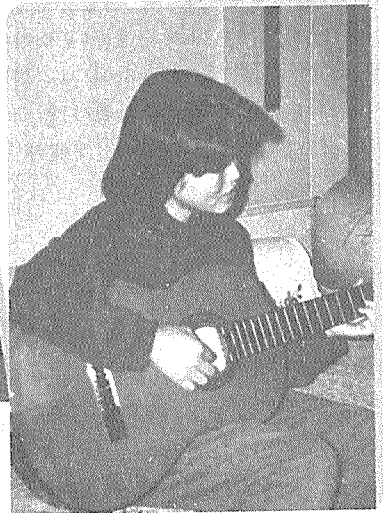




「생활자체의 평안함이
저희가족의 건강비결입니다」



남편 : 나현식
아내 : 조혜숙
시동생 : 나범식
시누이 : 나영자

『생활 자체의 편안함이 저희 가족의 건강비결입니다.』 주부 조혜숙씨(31. 강동구 잠실주공A. P. T 418동 103호)의 얘기다.

생활의 부유함이나 식탁의 풍성함보다는 함께 모여앉아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들, 그 속에서 피어나오는 웃음이 건강에는 최고라고 나현식씨(32. 금성 Software근무, 개봉대 강사)의 가족은 강조한다.

『지난번 제 생일때, 우리 아가씨가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서 가족이 함께 노래도 부르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모두들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잊지않고 사랑해 주는 마음에 너무나 무 감사해요.』 시누이 나영지씨(25. 카톨릭신학대학1)와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가끔씩 부군 나현식씨가 질투까지 한다면서 조혜숙씨는 맑은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이들 가족사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처에 있는 석촌호수로 자주 산책을 가요. 저녁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다보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겉으로 건강에 도움도 되구요.』

동생 나범식군(23. 홍익대 건축학과3)은 근처에 좋은 산책코스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끔 출출할 때면 아파트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뜨끈뜨끈한 우동 한

그릇씩을 비우죠. 아주 별미예요.』 하면서 막내 용철군(20.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2년)은, 가다가 꼭 한번 먹어보라면서 개구장이처럼 웃었다.

『곧 식구가 하나 더 늘니다. 그 녀석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최대의 관심사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나현식씨는, 『아이 때문에 자주 병원에 들러서 정기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이런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겠지요.』 라고 덧붙였다.

2개의 기타, 12개의 현 위로 흐르는 맑은 웃음과 사랑 속에서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젊은 사람들의 싱싱하고 겸허한 사랑이 넘치는 집을 떠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석촌호수의 고요함을 따라 걸을 때, 문득 생각나는 식귀절.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경건한 행위임을 잊지않게 하소서/ .../나눔은 끝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줄 것이 남는 연인들의 마음처럼/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더 나누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풍요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